

신석기 시대에 그린 '울산 國寶'

우리나라 예술의 기원은 중기 구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선사시대 예술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위그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산 중에서 울산의 대곡리와 천전리의 바위그림처럼 실물을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국보나 보물급 유물들이 보관 문제나 설치된 현장의 상황에 따라 외부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울산에 있는 바위그림은 일년에 가뭍이 드는 특수한 조건이 아니라면 볼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바위그림은 1968년 사연담 건설로 호수가 생기면서 평상시에는 물 속에 있다가 갈수기가 되어야 모습을 나타낸다.

바위그림은 동굴이나 노천에 있는 바위벽에 동물, 식물, 광물성 물감을 이용해 그리거나, 돌이나 금속으로 쪼고 갈거나 그어 파내는 기법으로 그린 것으로, 선사문화 연구에서 일반 유적이거나 유물로는 밝히기 어려운 고대인들의 정신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높이 70m·너비 20m의 거대한 규모

국보 제285호인 대곡리 반구대 바위그림은 경남 울산시 연양면 대곡리 반구동에 있다. 태화강 상류 냇물과 닿아 있는 '건너각단'이라는 절벽의 높이 약 70미터, 너비 약 20미터의 바위벽에서 물에 가까운 아랫부분에 그려져 있는데, 바위벽의 위 끝부분이 책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 비교적 그림이 잘 보존되었다는 추측이다. 색은 붉은빛을 띤 고동색이며 경도는 3.4이다.

그림에 등장하는 호랑이, 사슴, 멧돼지 등 동물들은 주로 새끼를 배고 있으며 뱃속 새끼까지 그려진 고래도 있다. 반구대 바위그림(대곡리 바위그림)은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림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바위그림의 거대한 규모와 양식은 한반도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에서 바위그림이 발견되는 순간 학계가 흥분에 차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며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신석기시대로 추정한다.

대곡리 반구대 바위그림을 보면, 바위그림 왼쪽 위에 고래들과 거북 그리고 그 꼭대기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전체 화면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쉽게 눈에 띄는 사람은 성기가 달려 있는 남자로서 오른쪽의 여러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얼굴까지 들고 입을 벌리고 있다.

바위그림의 전문가인 정동찬은 이 남자가 당시 중요한 식량 자원인 고래 사냥을 나가기 전 고래들이 많이 잡혀주기를 바라는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 주인공은 고래 사냥을 위한 의식 집행인, 즉 남성의 생산력을 상징하는 주술사이거나 고래 사냥꾼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했다.

거북은 공주 석장리에서 발굴된 후기 구석기시대의 돌거북과 함께 '거북 신앙'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 곳 지명 역시 '반구대(盤龜臺)'로서 장수, 벽사, 상서롭고 귀여운 의미를 갖고 있는 거북신앙과 밀접하다. 거북의 머리는 그 신축성 때문에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움츠린 모습과 몸통은 여자의 성기와 자궁을 상징하여 신비한 생산력을 나타낸다는 견해도 있다.

왼쪽에는 같은 자세의 사람을 표현하려다 그만둔 듯한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아래는 거북 세마리와 어미고래 등에 업힌 새끼고래를 선두로 물을 뿜어대는 고래, 작살에 꽂힌 고래, 흰수염고래, 돌고래 등이 있다.

어미고래가 새끼고래를 업고 있는 모습은 많은 고래가 새끼를 낳아 업고 다니기를 비는 염원을 잘 보여준다. 고래의 종류는 그 모습으로 보아 귀신고래로 추정되는데, 귀신고래는 다른 수염고래보다 배주름이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어 새끼를 업기 편하다.

귀신고래는 새끼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새끼고래가 30초 이상 물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

우리나라의 예술은 선사시대의 바위그림에서 비롯된다.
 국보 285호인 울산시 언양면 대곡리 반구대의 바위그림은 신석기시대에 그려진 그림으로
 절벽높이 70m, 너비 20m의 바위벽에 그려졌다. 이러한 거대한 규모와 양식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면 위로 떠올라 호흡을 시키는 것이다. 특히 이 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장 많이 나타나 그 해면이 천연기념물 제126호로 지정되어 있고 유일하게 'Korean gray whale'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수염고래는 먹이를 한 입에 머금어 수염으로 걸러 먹는데 이들 모습을 상세하게 그렸다. 물을 뱉는 새마리의 고래그림 중 우측에 있는 고래는 먹이를 한입 가득 물어 거르는 과정에서 물을 뱉고 있는 모습을, 두번째 고래그림은 먹이를 다 걸러 삼키고 있는 모습을, 세번째 그림은 다시 그 과정을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특히 매우 현대적인 감각으로 거꾸로 뒤집혀진 고래, 고래를 잡은 뒤에 분배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어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이는 고래를 철저히 관찰했다는 뜻으로 이 바위그림을 제작한 고대인은 예술감각이 풍부한 전문가였음이 틀림없다.

한마디로 대곡리의 바위그림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래 사냥꾼의 대서사시로 세계인의 찬탄을 자아낸다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 곳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수렵시대의 신성한 지역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물론 바다에서 거의 20킬로미터나 떨어진 내륙에 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동물이 새겨진 것이 의문이지만 지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암벽 좌측에 그려진 고래들은 아마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내지 6천년 전에 바다가 내륙까지 들어왔던 시기에 이 곳에 살던 사람들이 잡았던 것으로 추측한다.

천전리 바위그림은 공룡의 흔적

반구대 바위그림과 쌍벽을 이루는 국보 제147호의 천전리 바위그림은 대곡리 바위그림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화강 지류인 대곡천 상류의 높이 2.7미터, 너비 약 9.5미터의 바위벽에 그려져 있다.

특히 '천전리 각석'이라고도 불리는 바위그림은 공룡의 흔적과 선사인류가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거무튀튀한 돌 병풍 아래 반석을 유심히 살펴보면 크고 작은 정체 모를 발자국들 2백여개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1995년에 처음 발견된 공룡의 발자국은 일정한 방향이 없는데 이것은 1억년 전의 공룡들이 평화롭게 배회하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평면그림은 주로 사슴 등의 짐승이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인면수신 그림이 특징적이다. 사슴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한 그림은 동물을 가장한 사냥꾼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상어를 표현한 듯한 물고기 그림과 꽃도 나타난다.

선그림은 굵은 선과 가는 선으로 나누어진다. 굵은 선 그림은 여성 성기를 단순화한 듯한 타원형, 구름과 태양으로 짐작되는 연속된 마름모와 동심원, 물결무늬 등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 솜씨만은 어느 현대 추상화가 못지않다.

울산의 바위그림 외에도 고령 개진면 양전리 알터의 바위그림, 고령 안화리 바위그림, 경주 석장동 금장대 바위그림, 영월 칠포리 바위그림, 안동 수곡리 바위그림, 영천 보성리 바위그림, 남원 봉황대 바위그림 등이 유명하다.

선사시대 인간들의 터전이자 성소인 바위그림은 자신들의 염원과 갈망을 보여주는 도구인 동시에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누리고 있는 후손들에 대한 배려라는 주장도 있다. 대곡리의 바위에 고래 사냥꾼의 서사시로 불릴 만큼 고래의 생태를 비롯하여 동물을 정확하게 그린 이유는 책이 없던 시대에 그들이 포획하고자 하는 고래나 동물의 습성을 표시해 두면 후손들이 목적물들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⑳

李 鐘 鎬 <피라미드워즈 전문위원/파학저술가>